

북스

지구온난화의 책임, 정치에 묻다

어린이 책꽂이



▲안나와 할아버지와 눈보라=1888년 미국에 몰아닥친 엄청난 눈보라 때 벌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쓴 작품이다. 손녀와 무뚝뚝한 할아버지가 눈보라 때문에 기차에 갇혀 버려지는 일을 담았다. 할아버지를 싫어했던 안나가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할아버지를 조금씩 믿고 따르는 과정이 섬세하게 펼쳐진다. (시공주니어·6천원)



▲누구야, 너는?=은봉 공부만 매진하는 6학년 현우의 비밀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동화다. 현우의 비밀은 혼자 있을 때 마다 어떤 아이가 나타나 말을 건네는 것.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언제부터가 현우를 자주 불쌍하다는 뜻이 폴크리미 바라바라 현우를 화나게 한다. (문학동네·9천500원)



▲아빠도 시간이 필요해=영광 출신 동화작가 이성자씨의 새 창작동화집. 아빠는 엄마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조차 돌보지 않고 슬픔에 빠져 있다. 아들 민규는 그런 아빠가 이해되지 않는다. 하지만 민규는 곧 깨닫는다. 어른들이 거인도 아니고, 무엇이든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외이아이·9천원)



▲못된 장난=독일 작가 브리기에 블로벨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스트랩'을 소재로 쓴 청소년 성장소설. 독일의 명문 학교로 전학 간 열네 살 소녀 스텔라라는 우르라이나 태생에 입학 학교 출신, 싸구려 옷을 입는다는 이유로 같은 반 아이들에게 은근히 따돌림을 당한다. (푸른숲·9천500원)



▲퍼스트레이디를 알면 미국이 보인다=제미와 교양을 주는 만화 '알면 보인다' 시리즈의 첫 번째 책. 백악관 살림부터 자녀교육까지 미모와 지략, 열정과 야심으로 대통령을 움직인 퍼스트레이디들의 역사를 담았다. 마사 워싱턴부터 미셸 오바마까지 미국 퍼스트레이디의 성장과정 등을 소개한다. (김영사·9천500원)



▲선생님과 함께 읽는 백석=1940~50년대를 풍미했던 시인 백석(본명 백기행·1912~1995)의 생애를 평전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음식, 여행, 고향 등 키워드를 통해 백석의 시 27편을 풀이했다. 또 백석이 동화와 동시를 결합해 선구적으로 개척한 아동문학 동화시와 후기 산문도 함께 실었다. (실천문학사·8천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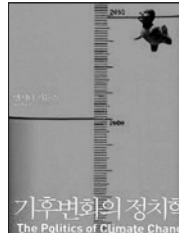


▲동네 사진관의 비밀=한국일러스트레이션 학교를 졸업한 정혜경씨의 첫 번째 창작그림책. 지우는 동네에서 작은 사진관을 운영하는 아빠와 함께 토요일마다 사진을 찍러다닌다. 사진관 위층에는 다라방이 있고 아빠가 모아 둔 사진들이 많다. 어느 날 지우는 엄마가 찍힌 아빠의 젊었을 때 사진을 발견하게 된다. (느림포·1만천원)

▲색깔이 뱅글뱅글=색깔에 대한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림책. 빨강, 파랑, 노랑 3원색의 변화를 색깔들이 잔, 우추선, 풍선, 벌, 일곱색깔 우주열차, 무지개로 표현해 지루하지 않게 알려준다. 우리나라 전통 5방색의 고유 빛깔을 색종이공예와 상모돌리기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했다. (고인돌·9천원)

기후변화의 정치학

앤서니 기든스 지음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면서 남극, 북극의 빙하가 녹아 바다물이 차가워진다. 이 때문에 해류의 흐름이 바뀌게 되고, 지구는 빙하로 뒤덮이는 거대한 재앙을 겪게 된다.

사람들은 추위에 떨며, 도서관에 갇혀 인류가 이룩한 위대한 유산인 서적들 뒤에 몸을 숨긴다. 2004년 개봉한 영화 '투모로우'가 경고한 기후변화의 모습이다. 영국 정치·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의 '기후변화의 정치학'은 기후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법을 제시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PCC)'는 2001년 보고서에서 기온 상승과 관련해 66%가 인간의 활동에 기인한다고 했고, 2007년 보고서에서는 90% 이상이라고 못박았다. 기온 상승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그만큼 심각해졌다는 의미이다.

저자는 기후 변화의 책임을 정치에서 찾는다. 인간 생활의 가장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구는 국가이다. 이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조약이나 온실가스 배출권 교역시장(탄소시장),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발전 등 이제까지 제시된 해결책은 모두 국가가 움직여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현재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어떠한 정책도 있지 못하다"고 단언하면서 각국 정부에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한다.

먼저 지금까지 지구온난화 해결책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원인을 '기든스의 역설'이라는 말로 설명한다.

청소년들이 담배의 해로움에 대한 경고를 충분히 듣고도 40대에 딱처울 건강 약화를 실감하지 못해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도 기후 변화의 위험을 알지 못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저자는 국가가 사회제도와 일상 생활에서의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책임 국가(ensuring state)'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국가가 사회 여러 집단의 실적을 유도해야 하고, 또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가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포함된다.

현실 정치에서의 실천 방법을 제시한다. 기후



영화 '투모로우'는 현실 속에서도 가능한 기후 변화에 따른 재앙이다. '기후 변화의 정치학'은 기후 변화의 책임을 정치에서 찾는다.

변화와의 싸움에는 장기적 정책이 필요한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권이 자주 바뀌므로 기후 문제를 최우선 정치 의제로 유지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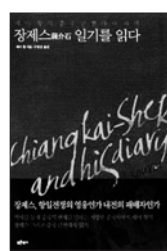
지구온난화 문제를 급박한 정치 의제로 유지하려면 대중에게 기후 변화를 일상사와 직결되는 일로 인식시켜 여론을 끊임없이 형성, 유지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 또 "기후 문제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좌파와 우파의 이분법에서도 벗어나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이 환경정책에 따르도록 하는 것도 국가의 몫이라고 강조한다. 새로운 환경 정책에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인들을 기후 정책 실행의 '전위대'로 육성하는 방안을 한 예로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기후 변화를 일으킨 선진국보다 후진국이 더 많은 피해를 보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선진국들이 먼저 온실가스 통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에코포스트·2만원) /오광기자 kroh@kwangju.co.kr

중국 근현대사 혁명의 재해석

장제스를 읽다 레이 황 지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의 항일전쟁이 이끌었던 인물은 분명 장제스(蔣介石·1887~1975)다. 그러나 우리에게 장제스는 항일전쟁의 영웅으로서보다 마오쩌둥과의 대결에서 패배한 뒤 타이완으로 쫓겨 간 내전의 패배자로서 더 익숙하다. 격동의 중국 근현대 그 격렬한 혁명적 변화 속에서 장제스가 수행했던 역사적 역할은 무엇이었나?

'허드슨 강변에서 중국사를 이야기하다'로 잘 알려진 중국계 미국인 역사학자 레이 황은 '장제스 일기를 읽다' (원제 Chiang Kai-shek and His Diary as a Historical Source)에서 이 같은 물음을 던진다.

저자가 인용한 '장제스 일기'의 원본은 2005년 장제스 유족의 요청에 따라 미국 스탠퍼드대학 후버 연구소에 맡겨졌고, 후버 연구소는 유족과의 약정에 따라 이 일기를 매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저자는 이 '장제스 일기'를 토대로 20세기 초중반 중국 역사의 현장을 재해석했다.

저자는 또 20세기 말 중국 근대 국가의 눈부신 발전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장제스, 마오쩌둥, 덩샤오핑 등 세 명의 지도자들이 그러한 발전을 가능케 한 역사적 토대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푸른역사·2만9천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랑보다 더 진보적인 것은 없다

우아한 패배 한완상 지음



부총리 겸 통일장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대한적십자 총재 등을 지낸 한완상(73)씨가 1993년부터 올해 8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언론, 논객, 시민과 대화한 내용을 묶은 대담집 '우아한 패배'를 펴냈다.

한 전 부총리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지나 현재의 MB정부에 이르는 네 정부를 지나오며 겪은 갈등과 고뇌를 이야기하며 한반도 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생각을 풀어놓았다.

그는 특히 1993년 처음 문민정부의 대북 정책을 '햇볕정책'으로 표현했을 때부터 국민의 정부에 "참새 몸통에 독수리 날개"를 다는 우스운 꼴을 보이자 말라"며 개혁 정당을 면밀하게 살펴라고 고언했던 시기, 현 정부에서 '빅 브라더 출현'이 보임을 우려하고 있는 지금에 이르러서도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전 부총리는 승자 독식과 승리주의의 가치가 예견돼 온 한국사회에서 진자 이기는 힘으로 '우아한 패배'를 꼽는다. "패배와 복수의 악순환을 넘어 '상생과 상승(相勝)의 새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는 "우아하게 패배할 수 있는 용기의 힘은 자기의 탐욕을 비워내고 독성을 내려놓는 사랑의 힘에서 나온다"며 "이 사랑의 힘보다 더 진보적인 힘은 없다"고 말한다. (김영사·2만3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나치 친위대 장교의 목시목적 고백

착한 여신들 1, 2 조나탕 리텔 지음



미국인 작가 조나탕 리텔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작품 '착한 여신들' 1, 2가 번역되었다. 2006년 프랑스어로 출간된 이 소설은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인 공쿠르상과 아카데미 프랑세즈 소설 대상을 수상했고 현재까지 1백만 부가 넘게 팔리며 유럽을 뜨겁게 달군 밀리언셀러다. 책을 출판한 갈리마르 출판사는 쇠도하는 주문을 맞추느라 '해리포터'의 인쇄까지 미를 정도였다.

소설은 어느 나치 친위대 장교의 시각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과 독일 사람들을 치밀하게 파헤쳤다. 소설의 주인공은 독일 친위대 장교 막시밀리안 아우.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시기, 스물다섯에서 서른 살 사이에 나치 친위대 장교로서 대학살에 참여한 일을 회고한다. 소설의 틀은 크게 틀로 나뉜다. 하나는 아우 개인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에서 겪는 반유대주의 홀로코스트이다.

소설은 좋은 가장이자 친절한 이웃이었던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그토록 잔인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끔찍한 진실을 들춰낸다. 누구도 미치지 않았으나 모두가 광기에 휩싸였던 지옥의 나날들에 대한 나치 친위대 장교의 목시목적 고백을 담았다.

(랜덤하우스·각권 1만5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Table with multiple columns for election results, including '공인중개사: 강영희', '(주)국민법률경매', and '박영진 이사'. It lists various candidates and their results across different districts.